

본격 대선 레이스 돌입...국힘, 희대의 후보교체 촌극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등록
 오늘부터 22일간 공식선거운동
 광화문·부산·여수서 각각 출정

12일 0시를 기해 22일 동안의 '6·3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이 등록해 원내 정당간 '3자 대결'이 성사됐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과 개혁신당이 일찌감치 본선 후보를 확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란 촌극 끝에 11일 가까스로 후보등록을 마쳤다.

애초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통과했던 김문수 후보는 후보 선출 직후부터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원하는 지도부와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일화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묻는 ARS 조사까지 벌였지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후보 교체 안건은 부결됐다.

마지막 후보 교체 찬반 투표에서 당원들이 손을 들어주면서 김문수 후보는 후보 선출 일주일 만에 낙마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다.

이번 대선은 45년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역대 대선 구도와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역대 대선은 거대 양당이 격돌하는 '양강 구도' 중심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중도층도 용납하지 못한 비상계엄으로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다른 정당 후보들과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어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은 이번 대선을 '1강 1중 1약' 구도로 보고 있다. '대세론'의 이재명 후보에 맞서 영남권(PK·TK) 등 전통적 지지층이 확고한 김문수 후보가 중위권에 속한다.



본지 주최 '5·18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0일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5·18사적지 함께 걷기 축제'에서 김경남 전남매일 대표, 이정선 광주시교 육감, 문인 북구청장, 이근배 전남대학교 총장, 학생, 시민 등 참가자들이 손을 흔들며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12·13면 김태규 기자

'중도 보수'를 표방한 이준석 후보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거대 양당 후보에 밀리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 첫날 첫 유세 장소에 상징성을 부여하며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이재명 후보는 첫 유세 장소로 '빛의 혁명'이란 상징성을 띤 광화문 광장을 선택했다. '빛의 혁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내란 극복 과정을 지칭한다.

이재정 민주당 유세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124일 동안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합성을 유세의 광장으로 연장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내란에 멍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광화문에서 유세를 시작한 뒤 첫 번째 유세 벨트는 'K-이니셔티브 벨트'"라며 "추격의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고, 모방의 시대를 넘어 주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2면으로 이어짐 서울=김현수 기자

전남 찾은 이재명 "반역사 세력 반드시 제압"

화순 등서 경청투어 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투어' 마지막 행선지로 전남을 찾아 "반역사·반민주공화국 세력을 반드시 제압하자"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화순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 나라,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 받는,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만을 위해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며 이 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한 이 후보는 "1980년 5월 모든 치안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열흘동안 아무런 절도와 폭력 없이 주먹밥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를 잠시느끼지 않았나"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국민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국민이 곧 국가이고 국가가 국민인 나라를 민주공화국이

라고 불렀다. 그런 민주공화국을 향해 우리가 지난 12월 3일에도 이겼고 지금도 내란과 싸워서 이기는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여러분이 쓰는 도구이고, 세상을 만드는 것도 세상을 후퇴시키는 것도 모두 국민이 하는 일이다"며 "압도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선택으로 여러분의 세상과 나라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들라"고 덧붙였다.

강진군으로 자리를 옮긴 이 후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을 언급하며 소통·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시 당파 싸움하느라 노론 소론, 남인 서인 갈라서 하루 종일 싸우고 죽이고 할때 정약용 선생은 포기하지 않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만들어보겠다고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 위대한 사람"이라며 "실용적 입장에서 보면 당파, 우리 현대식 표현으로 좌우, 색깔, 지역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나라를 위한 실용적 학문 연구에는 벽이 없었던 것처럼 정책이나 국정에도 평가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아직도 내란 끝나지 않았다. 2차 내란이 있었고 3차 내란이 진행 중이다"며 "그 진압의 끝, 진짜 시작은 바로 6월 3일이다. 완벽하게 내란을 진압하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시작하자"고 거듭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후 해남 읍내와 영암 특전 낙지골 목방문을 끝으로 경청투어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북부와 강원외 접경지역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벨트, 충청·전북, 영남, 전남 등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찾기 어려운 소도시와 마을을 방문했다. 10일간 이어진 경청투어 기간 중 전국 51개 시·군을 방문한 이 후보는 지역 경제 현장을 살피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용현 기자

국가전력망은 국가경쟁력

한국전력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미래산업의 성장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기본이기에 한국전력은 전력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 한국전력은 전력질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

국민의 옆자리에 한국전력